

영화 「쿵푸팬더 4」에 나타난 동서양 성장심리 비교

최원혁*

- I. 서론
- II. 「쿵푸팬더」 시리즈에 나타난 서양 성장심리
- III. 「쿵푸팬더」 시리즈에 나타난 동양 성장심리
- IV. 「쿵푸팬더 4」에 나타난 동서양 성장심리 통합

I. 서론

최근 애니메이션의 흥행 공식은 성장 서사에 있다. ‘성장 서사’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같이 한 개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루는 서사 장르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근대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자기 능력을 최대로 올리는 데 있어 성장 서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한국 최초의 소설 『무정』 등도 다 성장 서사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설과 영화에서 다루어지던 성장 서사를 최근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소설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하고 다양한 실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

성장 서사적 애니메이션 가운데 『쿵푸팬더』는 성장 서사적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 흥행에 성공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가운데 동양적 배경의 성장을 강조하는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쿵푸팬더』 시리즈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쿵푸팬더』 이전에도 과거 『물란』과 같은 동양적 배경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물란』이 흥행에는 성공했는지라도 동양적 정서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비해 『쿵푸팬더』는 동양적 정서를 동양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우수하게 표현했다고 평가받았다.²⁾

『쿵푸팬더』는 쿵후와 거리가 먼 비대한 몸집과 성장배경을 가고 있지만 쿵후 고수가 될 것이라는 꿈만 있던 팬더 곰 포가 우연한 기회에 마을을 위기에서 구해낼 ‘용의 전사’로 지목받고 우여곡절 끝에 ‘용의 전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극복해나간다는 성장 서사를 가진 애니메이션으로 현재 16년에 걸쳐 4편까지 상영되

* 대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 중 디즈니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미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섬세하고 뛰어난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재현을 보여준다고 한다.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학』, 서울: 향연, 2005. pp 64-65, 박남용, 정영선, 「『쿵푸팬더1,2』에 나타난 문화적 혼종성과 오리엔탈리즘」, 『中國研究』 53(-), 2011, p.5에서 재인용.

2)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423-445, 2010,

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쿵푸팬더』 1편은 국숫집 양아들로서 국숫집의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 포가 내면의 꿈인 쿵후 고수 “용의 전사”로 우연히 선정되고 그에 대응하는 어려움 과제를 자신의 경험을 살린 교육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이다. 『쿵푸팬더』 2편은 ‘용의 전사’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 오던 포가 가장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의혹을 극복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고 자신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더 이상 과거로부터 자신을 자유로워 지면서 ‘용의 전사’로서의 과업을 수행한다. 과거를 극복하면서 포는 1편보다 더 성숙한 ‘내면의 평화’ (Inner’s peace) 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 3편에서 포는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존재로 발전한다. 또한 내면적으로도 친아버지를 만나고 친아버지에게 속는 아픔까지도 극복하지만 친아버지를 용서하고 친아버지의 도움으로 기의 세계까지 넘나들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간다. 4편에서는 이제 남을 가르치는 경지를 넘어 자신의 후계자를 지정하고 자신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제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적해야 했던 존재들과 화해하고 자신은 자신마저도 모방하는 존재와 대적하되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신의 후계자와 두 아버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쿵푸팬더』가 또한 동서양 성장심리 비교에 있어 특별한 애니메이션인 이유는 『쿵푸팬더』는 동서양의 혼종성을 가져 동서양 성장심리를 비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중국을 상징하는 팬더라는 외모를 가진 포가 결정적으로 서양과 혼종성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포뿐 아니라 대부분의 캐릭터가 서양의 파란 눈이나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쿵푸팬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쿵푸팬더』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서양의 흥행 공식인 영웅서사를 가지고 있지만 영웅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동양의 공식을 따르며 특히 동양사상의 핵심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³⁾

인간의 성장은 동양사상의 핵심 주제였으므로 성장 서사적 애니메이션 가운데서도 『쿵푸팬더』에 대한 성장 심리적 선행연구는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성장론적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대중적 평가를 보면 기존 작품 가운데 가장 완벽한 시리즈라는 비평가의 평가도 있었다. 『쿵푸팬더』 시리즈의 성장론은 1편에 나오는 대사부의 말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며, 오늘은 선물이란다. 그래서 그것을 Present(현재, 선물)라고 부르는 것이지”에 요약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쿵푸팬더』 1편은 현재의 ‘나’를 들여다 보는 이야기, 2편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3편은 미래를 두려워 말고 ‘나’에 집중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⁴⁾

다음 동서양의 성장이론을 작품분석에 활용한 사례를 보면 먼저 성장론적 인간관의 대표적 이론가인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 1908-1970)의 욕구발달단계(hierarchy of needs)를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 1917-1992)의 기호학과 연결하여 『쿵푸팬더』 1,2,3 편에 이르는 성장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공현희의 연구가 있다.⁵⁾ 공현희는 『쿵푸팬더』 1편에서 포는 매슬로우의 3단계 욕구 상태 곧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로서 집단을 만들고 동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욕구단계에 있었다고 한다. 내적 갈등으로 과업의 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면의 평화를 달성하는 2편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4단계, 그리고 3편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동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 무엇인 지를 깨달아 기를 수련하는 욕구 5단계까지 발전한다고 한다.

3)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2010., pp. 434-435

4) 포는 어떻게 될까? | 『쿵푸팬더』 4 리뷰, <https://www.youtube.com/watch?v=MyeUAOmZkSg>

5) 공현희, 「시리즈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역할 및 욕구변화에 대한 연구-『쿵푸팬더』 시리즈애니메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3: 77-102. 2016.

2010년부터 『쿵푸팬더』를 꾸준히 분석해 온 양세혁은 『쿵푸팬더』의 성장 서사가 기존과 달랐던 점은 기존 애니메이션이 강조해 온 욕망 일변도의 1차원적 캐릭터에서 벗어나 두려움까지 포함하는 2차원적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공현희와 달리 양세혁은 포를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힘은 성장에 대한 욕망보다는 두려움이었다고 한다. 포를 움직인 것은 쿵후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쿵푸는 커녕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요리마저 못하는 쓸모없는 뚱뚱한 팬더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한다.⁶⁾ 『쿵푸팬더』가 다른 애니메이션과 달리 주인공의 두려움에 주목한 것은 『쿵푸팬더』가 강조하는 동양적 요소 중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서양인과 대비되고 성장보다는 안정을 지향하는 비관적인 동양인의 특성을 반영한 셈이다.

안정훈은 『쿵푸팬더』가 동양인보다 더 동양인의 특성을 성장심리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연성에 대한 인연의 강조, 사물의 양면성에 대한 수용, 인위적인 것에 대한 자연의 무위에 대한 강조 등 유불선에 대한 전반적인 강조이다. 특히 『쿵푸팬더』에서 동양적 요소는 사건의 전개와 구성에 핵심적 요소를 차지한다고 한다.⁷⁾

양세혁은 다시 후속 연구에서 우연성에 대한 필연, 사물의 양면성에 대한 수용, 인위적인 것에 대한 자연의 무위와 같은 양면성의 통합은 ‘아이러니’라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쿵푸팬더』의 등장인물들은 결핍과 사건의 은유 작용과 외관과 현실의 모순작용에 나타난 상반성을 아이러니를 통해 해결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1편에서 포는 쿵후의 열광적 팬으로서 용의 전사가 되는 꿈을 꾸며 자신의 실수로 용의 전사로 우연히 지목되지만, 운동신경이 둔해 오히려 꿈의 실현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포에게 결핍과 사건의 은유 작용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자격이 없다’가 된다. 이는 포의 외형적 특징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은 결핍의 형상화인 신체조건이 1편의 대적자 타이링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작용의 기능은 포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즉,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포용하고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고 한다.⁸⁾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쿵푸팬더』 시리즈의 성장심리에는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각 요소에 관한 내용은 각각 동서양의 각 요소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동서양의 성장심리를 통합해주는 요소가 있지만 그 요소가 동서양의 어떤 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비하다. 특히 『쿵푸팬더』 4는 포뿐 아니라 포가 대적했던 기존 『쿵푸팬더』의 적대자들이 모두 출현하여 과거와 다른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분석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이 글은 『쿵푸팬더』 4를 중심으로 『쿵푸팬더』가 어떻게 동서양 성장심리를 통합하였는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론을 중심으로 각각의 동서양 이론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합한 원리에 대해서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1, 2, 3 편과 달리 4편이 가지는 특이성과 아직 해명되지 않는 기존 1, 2, 3편의 적대자들이 4편에서 성장한 계기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성장 서사에 나타나는 동서양의 차이와 그 통합방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6) 양세혁, 「<쿵푸팬더> 캐릭터의 욕망과 두려움 분석」, 『예술과 미디어』 10(2), 2011, pp.100-101

7)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2010., pp. 431-435

8) 양세혁, 「은유와 모순의 의미작용에 의한 캐릭터 아이러니의 구조 - <쿵푸팬더>, <업>,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5(4), 2016, 141-142; 양세혁, 「<쿵푸팬더>, <업>, <겨울왕국> 캐릭터의 정신역동적 성장 구조 - 욕망 왜곡의 변인으로서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4(4): 145-169. 2015.,

II. 「쿵푸팬더」 시리즈에 나타난 서양 성장심리

『쿵푸팬더』가 팬더라는 동양적인 등장인물과 쿵후라는 동양적인 소재를 청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서양의 성장 서사로 간주하는 것은 『쿵푸팬더』 시리즈가 중국 무협의 정석을 따르기보다는⁹⁾ 전형적인 서양의 성장 서사인 영웅의 12단계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 『쿵푸팬더』에는 중국 무협의 정석인 지난한 훈련 과정 등이 없고 영웅서사처럼 소명을 받아들이기만 함으로써 능력을 획득한다. 그러나 쿵푸팬더의 즉각적인 능력 획득은 영웅서사뿐 아니라 『쿵푸캐슬』과 같은 동양의 최신 무술영화와도 공통되는 점이 있어 반드시 서구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영웅서사는 서양의 영웅서사에 공통되는 하나의 서사라고 한다. 서양 영웅서사에는 수많은 서사가 있지만 실제 서사는 매우 단순한 하나의 서사라고 한다. 서양의 영웅서사가 하나의 서사로 요약된 데에는 조셉 캠벨(Joseph John Campbell, 1904-1987)의 연구가 선구적이었다고 한다. 캠벨은 영웅의 서사가 입문-시련-귀환이라는 3단계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이는 17단계로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주인공을 둘러싸고 7명의 지원자 혹은 적대자들이 대립하는 공통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¹¹⁾ 캠벨의 영웅서사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동양 성장 서사에 적용할 때는 다소 주의가 있어야 한다. 서양 성장 서사가 영웅서사로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은 서양이 실체를 강조하는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쿵푸팬더』가 서양 성장 심리 서사로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영웅서사에 나타나는 애착, 좌절, 거절이라는 부정적 감정이다. 애착, 좌절, 거절은 정신분석학이나 매슬로우의 성장론적 인간관과 함께 인간의 성장을 다루는 대표적인 성장이론이다. 대상-관계이론은 인성이 형성되는 것은 정신분석학과 같은 내면의 욕망도 아니고 성장론적 인간관과 같은 자기실현도 아니다. 대상-관계이론은 초기 인성이 형성될 때 대상과 맺어지는 관계 때문에 인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자원의 한정으로 즉각적으로 모두 충족될 수 없듯이 욕망의 대상과 주체는 애착, 좌절, 거절이라는 3가지 관계로 구분된다. 이 3가지 관계는 서양의 전통적인 성격 이론인 에니어그램에도 자세히 나타난다.

『쿵푸팬더』에서도 애착, 좌절, 거절은 쿵푸팬더의 성장 과정에서 주요 지점에 나타난다. 『쿵푸팬더』 1에서 포가 ‘용의 전사’로 선택된 후 힘든 수련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부인 시푸가 먹는 것에 대한 포의 애착을 훈련이라는 긍정적 요소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쿵푸팬더』 1에서 ‘용의 전사’로서 발견한 비급은 백지로서 쿵푸팬더를 좌절하게 했다. 『쿵푸팬더』 2에서 『쿵푸팬더』 2의 적대자 공작 쉐의 문양에서 포가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무력화된 것은 어렸을 때 버려졌다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쿵푸팬더』의 서양적 성장서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성장의 장애인 애착, 좌절, 거절을 만날 때마다 이를 극복하게 되는 계가는 동양적 사유라는 것이다. 사부인 시푸가 먹는 것에 대한 포의 애착을 훈련이라는 긍정적 요소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대사부 우그웨이의 불교적 지혜였다. 용의 전사를 뽑는 자리에서 포가 하늘에서 떨어져 대사부의 낙점을 받을 때도 그것은 사고(accident)였다고 주장하는 시푸에게 대사부는 ‘우연이란 없다(There are no

9)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2010., pp. 431-435

10) 김수정, 「12 영웅여정단계 내러티브 분류에 기초한 애니메이션 분석」, 『애니메이션연구』 11(4): 43-59. <인크레더블>, <쿵푸팬더>, <라이온 킹>을 중심으로. 2015.

11) 김수정, 「12 영웅여정단계 내러티브 분류에 기초한 애니메이션 분석」, 『애니메이션연구』 11(4): 43-59. <인크레더블>, <쿵푸팬더>, <라이온 킹>을 중심으로. 2015

accidents)’고 설파하고, 불교적인 연기설을 암시한다.

후에 포가 과자를 먹기 위해 매우 높은 선반 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시푸 사부가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느냐고 묻자 포는 ‘우연’이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시푸 사부는 대사부의 가르침이었던 ‘우연이란 없다’는 말로 그에게 무술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¹²⁾

또, 훈련을 힘들어하는 포에게 대사부 우그웨이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불교적 깨달음으로 포에게 현실에 애착을 갖게 하고 훈련을 이겨나가게 한다.

포 : 나 그만두고 다시 국수 만드는 일로 돌아가야겠어요.
(May be I should just quit and go back to making noodles.)

대사부 : 그만두느냐 마느냐, 국수냐 아니냐. 넌 지나치게 과거와 미래에만 얽매여 있구나. 이런 말이 있단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며, 오늘은 선물이란단다. 그래서 그것을 Present (현재,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Quit, Don't quit. Noodles, Don't noodles. You are too concerned with what was and what will be. There's a saying.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it the present.)¹³⁾

『쿵푸팬더』 1에서 ‘용의 전사’로서 발견한 비급이 백지였다는 좌절에 포가 봉착했을 때는 외부의 허상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불교적 지혜로 극복한다.

아빠 : 우리 가문의 비밀재료는 말야. ... 없어.
(The secret ingredients isNothing.)

포 : 네? 잠깐만요. 아빠가 국물에 어떤 특별한 소스나 뭔가를 넣은 게 아니라고요?
(Hah? Wait, wait. You don't add some kind of special sauce or something?)

아빠 : 그럴 필요가 없지. 뭔가를 특별하게 만들려면 말야. 단지 네가 그것을 특별하다고 믿으면 되는 거란다. 비밀재료란 따로 없지.

(Don't have to. To make something special, you just have to believe it's special. There is no secret ingredient.)

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용의 전사 백지 비급을 보고 자신이 자격 미달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좌절하고 있던 순간 포의 양아버지는 그토록 가르쳐주지 않던 국수의 비급이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해 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쿵푸팬더는 큰 깨달음과 함께 좌절에서 벗어난다. 『쿵푸팬더』 1편에 나타나는 위 사례들은 애착을 역으로 활용하여 좌절에서 벗어나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동양적 성장심리를 보여준다.

『쿵푸팬더』 2에서는 좌절이 과거의 기억에서 나타난다. 『쿵푸팬더』 2에 나타나는 동양적 지혜는 1편과 달리 대화 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용의 전사’의 무공으로도 나타난다. 『쿵푸팬더』 2에서 대립자 로드 쉐의 문양에서 버림받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포는 결국 모든 능력을 잃고 깊은 부상을 당한 후 같이 버림받은 로드 쉐의 유모의 간호를 받으면서 기억을 회복하며 치유된다. 여기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동양의 공동체 문화가 문제를 해결한다.

12)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2010., p. 434

13) 『쿵푸팬더』 1,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2010, p. 435에서 재인용.

『쿵푸팬더』 시리즈에서 전체적으로 포는 ‘용의 전사’가 되었지만 늘 겸손한 동양적 캐릭터를 고수한다. 과거 기억을 회복하며 『쿵푸팬더』 2에서는 포가 자신의 심정을 적대자 로드 셴에게 말하는 표현에서 동양적 성장심리가 나타난다.

"아픈 과거는 날려버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쿵푸팬더』 1과 『쿵푸팬더』 2가 현재와 과거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의 애착, 좌절, 거절의 동양적 극복과정이었다면, 『쿵푸팬더』 3은 미래에 대한 극복과정을 보여준다. 『쿵푸팬더』 3에서 포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사부 시푸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공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쿵푸팬더』 2와 같이 포에게 남을 가르치는 과정은 너무 힘든 과정이다. 이때 포에게 오히려 친부가 나타난다. 포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그토록 만나고 싶은 친부를 만나고 친부의 고향으로까지 돌아가지만, 친부가 자신을 위협에서 빼내려고 오히려 속였다는 것을 알고 좌절한다. 그러나 좌절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가 그토록 거부하던 가르치는 길뿐임을 알고 가르치는 데서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낸다. 이때도 시푸 사부는 동양적인 지혜로 가르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포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암시해 준다. 시푸는 포에게 나처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라고 한다. 포는 이 말을 듣고 고향의 팬더 친구들을 가르친다,

“너는 너 자신으로 충분해”¹⁴⁾

포는 팬더 동료들에게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무술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결국 가르치는 데 성공한다. 『쿵푸팬더』 3에서 또한 애착을 활용하여 좌절을 극복한다. 포는 자신의 필살기가 적대자인 카이 장군과 같이 죽은 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좌절을 또한 겪게 되지만 포는 공동체를 위해 최후의 수단인 동귀어진을 생각해내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후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포가 가르친 팬더들에 의해 다시 이승으로 귀환한다. 팬더들은 과거의 “기(氣)” 활용방법을 찾아내 포를 다시 이승세계로 돌아오게 한다.

『쿵푸팬더』 1, 2, 3에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애착, 좌절, 거절의 과제를 다 극복한 포는 이제 『쿵푸팬더』 4에서 “변화”를 과제로 안는다. 포에게 변화는 애착, 좌절, 거절 모두를 새로 뛰어넘는 것이다. 포에게는 대사부 우그웨이의 경지인 정신적 스승에 이르게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번에도 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거부한다.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후계자를 가르키는 손가락은 도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포는 1편에서 자신에게 돌아온 우연의 행운처럼 우연히 만난 좀도둑 켄에게서 가능성을 찾는다. 켄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포는 자신이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알게 되지만 켄에게서 마저 배신당한다. 그러나 포는 켄에게 희망 걸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적대자를 만나 승부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켄이 하게 한다. 이번에 만난 강한 적은 바로 자신이었다.¹⁵⁾ 자신마저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카멜레온을 만나 포는 다시 내면의 평화를 통해 자신과 싸워야했다. 변화를 거부하여 포는 모든 것을 다 잃지만 두 아버지와 되돌아온 켄에 의해 되살아난다. 이에 자신이 만났던 적과 카멜레온을 통해 포는 변화를 이룬다. 자기에 대한 애착, 좌절, 거절을 극복해야 카멜레온을 이길 수 있었다. 가장 약한 카멜레온이 4편의 악당으로 나온 것은 가장 강한 것은 가장 약한 물이라는 도교 사상을 반영한다. 과제를 완성한 후 새롭게 만난 적들은 늘

14) 『쿵푸팬더』3

15) 정재은, 「'쿵푸팬더4' 금쪽이 '포'바오의 진실한 성장기」, 『서울경제』 24.03.29

랍게도 포와 같이 모두 성장해 있었다. 매슬로우는 말년에 자신이 말한 성장론의 단계를 전부 재검토하고 자기 초월 욕구를 말한 바 있다. 『쿵푸팬더』 4편은 1,2,3편과 달리 기존의 성장 서사 틀로는 이해하기 힘든 ‘변화’가 있었다.

『쿵푸팬더』가 서양 성장 심리 서사로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또 하나의 이론은 라캉(Jacques Lacan, 1902-1981)이 말하는 4가지 담론이다.¹⁶⁾ 『쿵푸팬더』 1, 2, 3, 4 편은 라캉의 틀로서 분석한다면 4가지 담론에 해당하는 히스테리서사, 주인서사, 대학서사, 분석서사에 해당할 수 있다. 『쿵푸팬더』 1편의 포는 자기 자신을 믿을수 없어 ‘용의 전사’로 선택되고 난 후에도 탈출을 꿈꾸고, 아무것도 없는 비급을 보고 자신이 자격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한다. 이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라캉의 히스테리서사에 해당한다.

공현희는 그레마스의 기호학과 매슬로우는 이론을 결합하여 쿵푸팬더를 분석했지만 라캉은 이 두 요소를 통합하여 4가지 담론을 이미 만든 바 있다. 다만 라캉의 분석이 매슬로우는 분석과 다른 것은 구조주의자로서 라캉은 개별적 욕망을 강조하는 대상-관계이론이나 성장론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동양과 같이 천지와 같은 구조의 반영으로 성장을 해석한다.

라캉의 4가지 담론은 구조주의 이론답게 발신자/주체 → 수신자/대상이라는 위치를 정해놓고 각 위치에 \$(반주체), S1(주체), S2(이상적 주체), a(대상)이 서로 자리를 바꿔 가며 발화자의 위치에 이르며 구성되는 4가지 담론이다. 발신자의 위치에 \$(반주체)가 있어 발신자/주체 → 수신자/대상이 \$/a → S1/S2의 위치가 되면 히스테리담론, 한칸씩 이동하여 S1/\$ → S2/a로 이동하면 주인담론이 된다. 담론은 히스테리담론 → 주인담론 → 대학담론 → 분석담론으로 변화한다. 이는 각각 『쿵푸팬더』 1, 2, 3, 4 편에 해당될 수 있다. 1편의 히스테리 담론을 극복한 포는 2편에서 어릴 때 버림받은 기억으로 주인담론의 위치를 상실하고, 다시 시련을 통해 기억을 회복함으로써 주인담론을 구성한다. 3편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포는 대학담론에 성공하고 4편에서 발신자의 자리에 자신을 비우고 대상을 놓는 분석담론은 4편의 포의 위치와 부합된다. 이상의 서양 성장이론은 다시 동양성장이론과 서로 연결된다.

III. 「쿵푸팬더」 시리즈에 나타난 동양 성장심리

고정된 실체를 강조하지 않고 가변적인 속성을 동양은 강조하다고 주장한 동서 비교학자 니스벳의 주장처럼¹⁷⁾ 동양은 서양에 비해 가변적인 성장과 공동체를 강조했다. 동양에 대한 깊은 이해로 호평받은 『쿵푸팬더』이지만 동양인의 기준에서 『쿵푸팬더』는 아직 동양을 왜곡한 점이 있어 『쿵푸팬더』는 동양에서 논란이 지속되었다.¹⁸⁾

먼저 공동체의 기준에서 본다면 동양의 성장 서사로 쿵푸팬더를 분석한다면 먼저 공동체의 경우 성장서사는 삼강오륜에 있다. 『쿵푸팬더』 시리즈는 이 삼강오륜의 공식에 대응된다. 『쿵푸팬더』는 삼강오륜을 개인의 성장에 현대적으로 적용시킨 정운채의 문학치료이론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 정운채는 삼강오륜을 각각 대상과 관계를 2가지 축으로 하여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로 구분하고 개인의 성장을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로 제시한 바 있다. 사람의 일생은 성장의 순서처럼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로

16) 권택영, 『라캉·장자·태극기』, 서울: 민음사, 2003, pp. 267-268

17)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2004.

18)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2010.

나뉜다는 것이다. 각각 그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면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¹⁹⁾ 여기서 대상과 관계는 사회적 법칙과 욕망 그리고 개인의 법칙과 욕망으로 구성된다. 자녀서사의 경우 세상의 법칙, 남녀서사는 개인의 욕망, 부부서사는 세상의 소망, 부모서사는 개인의 법칙이 해당된다.

이를 『쿵푸팬더』 시리즈에 적용해 보면 ‘용의 전사’로 선택되어 ‘용의 전사’로 성장해가는 과제에 집중하는 1편은 자녀서사에 해당한다. 자신의 출생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2편은 남녀서사, 공동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3편은 부부서사, 자신에게서 후계자를 정하는 4편은 부모서사에 해당된다. 각 서사단계에서 과제는 자녀서사는 순응, 선택, 지속, 양육 등이다. 영웅의 서사가 공동체와 무관한 개인적 성장의 12단계가 된다면 동양의 삼강오륜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음 속성을 강조하는 동양의 성장론적 서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천계로 대표되는 불교의 우주관이다, 불교에서 삼계(三界, trailokya 또는 triloka)는 욕계(欲界, desire realm), 색계(色界, form realm), 무색계(無色界, formless realm)를 말하며 이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다.

『쿵푸팬더』 1편에서 포는 ‘욕계’의 수준으로 ‘만두’라는 물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포는 오히려 이러한 물욕을 수행에 활용하여 임무를 완성한다. 용의 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출생의 정체성 위기에 빠진 『쿵푸팬더』 2는 명색을 추구하는 색계에 해당한다. 포는 시련을 극복하고 기억을 회복한 후 더 이상 색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자기의 무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쿵푸팬더』의 3편은 색계를 극복하고 올라간 무색계의 경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불교 삼계 28천이 아직 중생의 단계를 나타내듯 포는 4편에서 다음 과제를 준비해야 되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후계자를 정하고 자신은 정신적 위치에까지 올라야 하는 『쿵푸팬더』 4편은 28천 너머에 있는 천외천의 단계에 해당된다. 포는 자신의 가르침 때문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포는 천외천으로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동서양의 성장심리를 비교하는데 있어 동양의 경우는 서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쿵푸팬더』는 서양에는 마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듯 마음 대신 ‘내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쿵푸팬더』 분석에 마음이란 개념을 도입한다면 전통적인 동양의 성장서사 가운데는 포태-양생-육대-관왕의 서사를 적용할 수 있다. 포태-양생-육대-관왕은 식물이 성장하듯이 하늘과 땅이 상호작용하여 전개되는 형태이다.²⁰⁾

동양의 성장이론에서 마음이란 것이 천지의 신명이 왕래하는 장소가 되고 신명의 왕래를 통해 인간의 마음도 식물이 성장하듯이 포태-양생-육대-관왕의 12운성 순으로 성장한다. 포태가 남녀가 서로 만나 처음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면 양생은 탄생한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나 형체를 가지는 것이다. 식물의 경우로 표현한다면 천지가 만나 씨가 만들어져 땅속에 묻히는 것이 ‘포태’라면 땅속에서 씨가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가 발아하여 형체를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양생이다. 다시 동물의 경우 엄마 배속에서 형체를 다 갖추고 태어나 씻기고 옷을 입혀 띠를 두르게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관대라면 어른이 다되어 녹을 먹고 뜻을 펼

19)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 겨레어문학 제39집, 겨레어문학회, 2007, 8. 최원혁, 「영화 <토르>와 <쿵푸팬더2>에 나타난 서사발생지점에 대한 연구」, 『문학치료연구』 25(-): 131-154. 2012.에서 재인용

20) 이진훈, 「12운성에 관한 연구」. 공주: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0.

치는 것이 관왕이다. 식물의 경우라면 발아한 씨가 땅을 뚫고 나아가 이제 땅속의 물이 아닌 땅 밖의 물 곧 빗물을 받고 스스로 커나가는 과정이 옥대라면, 식물이 자라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할 단계가 되면 관왕이 된다. 동양에서는 10간에 해당하는 하늘의 기가 땅의 12지에 적용될 때 12가지의 운의 순으로 적용되다 하여 이를 12운성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10간 중 갑이라는 기운이 땅에 적용될 때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라는 12지에 대하여 목욕-관대-건록-제왕-쇠-병-사-장-포-태-양-생의 12가지 운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쿵푸팬더』에 적용한다면 역시 『쿵푸팬더』 1은 포태, 2는 양생, 3은 옥대, 4는 관왕의 순으로 해당된다. 먼저 포태의 경우 12운성으로 말하면 입문 단계라 할 수 있다. 『쿵푸팬더』 1은 막연한 꿈만 있고 쿵후라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쿵푸팬더』가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용의 전사로 포태되는 순간이다. 그 포태는 주변의 압력으로 가득차 있다. 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푸 사부의 분위기, 포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5인방, 누구보다도 훈련을 가장 괴롭게 생각하는 포, 포가 마주쳐야 할 타이령의 무공 모두 포에게는 넘을 수 없는 포태의 압력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포는 난관을 극복하고 과제를 수행하여 용의 전사로 입문하게 된다.

다음 『쿵푸팬더』 2는 이제 포태된 씨앗이 껍질을 뚫고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용의 전사가 되었지만, 포에게는 아직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과거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다. 포가 과거라는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하면 용의 전사의 다음 단계인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실제 포는 적과 마주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과거의 껍질을 벗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고 부상당하고, 치료받는 상태로 전락한다. 그러나 과거 기억이 회복하여 포는 씨앗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발아하듯 과거의 두터운 겁액에서 벗어나 오늘의 포로 되돌아온다.

『쿵푸팬더』 3에서 목욕은 자신의 껍질을 벗어난 포가 다른 존재들에게 자신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껍질을 뚫고 나온 씨앗은 마침내 땅의 압력마저 뚫고 나와 지상으로 출현하여 이제 땅의 물이 아닌 지상의 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쿵푸팬더』 3에서 포는 이제 기존의 무공 고수를 기로 다 흡수하는 카이 장군을 만나 과거의 고수들과도 다 싸워 이겨나가는 존재가 된다. 그 과정에서 포는 친아버지와 자기 가족과 친족들을 만나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 도피자로 낙인찍히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새로운 전사로 변신시키고 자신은 교육자로 변신한다. 포는 이제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

『쿵푸팬더』 1,2,3편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제를 수행한 포에게 새롭게 내려지는 과제는 ‘변화’를 통해 후계자 선정과 영혼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식물로 표현하면 자신이 열매를 맺어 새로운 씨로 바뀌는 ‘변화’의 과정이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아 기르는 존재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포가 맞닥뜨릴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되었다.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카멜레온은 포에게 적으로서의 포를 돌려주었다.

포태-양생-옥대-관왕을 보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겨울-봄-여름-가을의 순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노드롭 프라이(Herman Northrop Frye, 1912-1991)가 문학작품을 겨울-봄-여름-가을의 순으로 해석했듯이 『쿵푸팬더』의 포태-양생-옥대-관왕 또한 겨울-봄-여름-가을의 계절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쿵푸팬더』에서 용의 전사로 태어나기 위해 수많은 압력을 응축시켜 견뎌야 하는 과정은 겨울에 씨앗이 태어나기 위해 눈과 추위라는 겨울의 엄한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다음 『쿵푸팬더』 2는 겨울의 엄한 시련을 견뎌낸 용의 전사가 자신의 씨앗에서 탈출하는 봄의 폭발력에, 다시 『쿵푸팬더』 3는 여름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여름의 발양에, 그리고 『쿵푸팬더』 4는 자신으로부터도 자신을 독립시키는 가을의 수렴과 독립에 비유할 수

있다.

포테-양생-육대-관왕을 통한 12운성의 분석과 겨울-봄-여름-가을-겨울을 이용한 『쿵푸팬더』의 동양적 분석은 서양 영웅의 12단계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동양의 12운성과 원형이정을 토한 분석은 만물을 속성으로 파악하여 동일한 속성이 반복이라는 프렉탈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포의 무공은 천지의 기운이 반영되는 것이다. 반면 실체를 중시하는 서양의 영웅12서사나 대상-관계 이론, 라깁의 4가지 담론은 지수화풀과 같이 실체를 강조하는 이론이므로 동양과 같이 같은 원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쿵푸팬더』의 캐릭터 자체가 문화 혼종이라 하는 만큼 『쿵푸팬더』의 캐릭터는 동서양 어느 한 부분으로는 이해가 불충분하다. 이에 동양과 서양의 성장심리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기로 한다.

IV. 「쿵푸팬더4」에 나타난 동서양 성장심리 통합

실체 중심의 서양과 속성 중심의 동양이 만나는 것은 서양의 판단력과 관계되는 미학 부분이다.²¹⁾ 공통된 속성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동양의 상관적 사유 방식은 서양에서 미학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주를 공통된 원리의 중첩된 반복인 태극의 원리로 이해하는 동양은 사물을 천지인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으로 한다. 입자와 파동같은 음과 양으로 구성된 태극이 사물에 대 표적으로 적용된 것이 천지인이다. 따라서 천은 파동과 같이 무한히 발양하는 동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땅은 하늘이 발양하는 동화(同化)의 기를 형체로 변화시켜 실체화하는 응축(凝縮)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발양하는 동화 작용에 치우친 하늘과 응축하여 실체화하는 땅에 대해 양자를 중재하는 존재는 2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된다. 이 인간은 성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분화시켜 천지의 화육에 동참한다는 것이 태극에 기반한 동양의 천지인적 사유체계이다.

한국의 미학을 비교미학을 통해 연구해 온 최광진은 동양의 천지인 미학은 동양의 유불선 사상체계에 대응한다고 한다.²²⁾ 만물을 자연에 동화시키는 중국의 도교는 천의 동화적 속성에 가깝다면, 동양사상 중에 가장 서양의 실체론과 각운 불교의 경우는 도교가 발양하고 동화시키는 기를 응축시켜 형체로 만드는 응축작용을 한다. 확산되는 도교의 개념이 통제가능한 형태로 압축되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다. 도교의 확산과 불교의 응축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려는 것이 유교이다. 불교에 이미 천의 요소가 내재해 있지만 두 요소를 골고루 접화(接和)하는 것이 유교사상이다. 정립된 유불선을 다시 천외천인 존재로 환원하는 것이 서양의 서교가 된다.

동양의 천지인 미학을 서양 미학의 실체적 사고로 변용해 본다면 접화를 통해 최고의 명품을 지향하는 유교는 미학의 명품론, 명품의 분석을 통해 공통된 원리를 파악해 내는 도교는 작품론, 작품 사이의 관계를 서로 구분하는 분화적인 서교는 작가론, 작가들의 세계를 넘어 더 근원적인 존재를 지향하는 응축의 불교는 존재론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를 『쿵푸팬더』에 적용시켜 본다면 미학적 분석은 동서양 성장심리를 통일적으로 통합시켜 준다. 먼저 ‘용의 전사’라는 명품을 꿈꾸는 『쿵푸팬더』 1은 유교의 명품론이 된다. 용의전사라는 명품에 집착하는 옥계의 유교적 명품론은 발단부터 신과 같은 최고의 모델에서 시작

21) 김영건, 『동양철학에 관한 분석적 비판』, 서울: 라티오출판사, 2009

22) 최광진, 『한국의 미학』, 고양: 미술문화, 2015. pp.56-59

다. 신의 형상을 본따 인간을 만들었다는 서양의 실체론적 미학처럼 포의 현실은 그 반대였으나 접화의 원리로 포는 용의 전사로 탄생한다. 국수집 후계자라는 안전의 욕구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정을 바라는 포의 욕구가 성취된 『쿵푸팬더』 1은 매슬로우의 안전의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사회적 인정의 단계로 요망이 발전된다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과도 부합한다. 국수집 후계자란 자녀서사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던 포에게 보다 자기가 꿈꿔왔던 ‘용의 전사’라는 후계자로 거듭나면서 포는 자녀서사로서의 과제도 수행한다.

용의 전사로서 임무수행에만 열심이던 『쿵푸팬더』가 자기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하는 존재로 바뀌는 『쿵푸팬더』 2는 작품론에 다가선다. 포는 이제 ‘용의 전사’라는 명품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명품이 탄생하게 된 작품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유교에 대해 사회적 가치의 실존적 근거를 묻는 도교의 질문과 유사하다. 자신의 탄생과 관련된 과거와 화해함으로써 포는 명품이 탄생하게 되는 작품론도 이해하게 되어 자신의 실존적 동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용의 전사라는 명품을 탄생시키는 작품론도 이해하게 된 포에게 『쿵푸팬더』 3에서 다음과 같은 제로 주어지는 것은 교육이다. 자신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자신이 터득한 과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제이다. 이제 포는 작품론을 넘어 타인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작가론의 과제를 맞이했다. 자신이 수확한 것을 모두 나눠줘야 하는 여름의 식물처럼 포는 개개 작가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배당하는 작가론의 과제를 수행한다. 각 작가는 서로 다른 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기를 흡수할 필요가 없이 자기 내면의 기를 개발하면 작가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쿵푸팬더』 3는 카이와의 대결을 통해 보여준다.

『쿵푸팬더』 1, 2, 3을 통해 명품론, 작품론, 작가론까지 터득한 『쿵푸팬더』는 이제 『쿵푸팬더』 4에서 이 3가지도 다 초월하는 존재론의 단계로 진입한다. 포에게 내려진 과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전해주는 후계자를 발견하고 키우며 자신은 이제 다른 존재로 변화해야 하는 과제다. 포는 이 과제 또한 우여곡절 끝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해 낸다. 이 과정에서 포뿐만 아니라 포와 대적했던 『쿵푸팬더』 1, 2, 3의 대립자도 모두 성장하여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난다. 포가 그들과 대적하면서 표현한 동양사상적 가르침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포는 영혼의 단계 스승이라는 과제를 수행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또한 미학적 측면에서 보면 각각 명품론, 작품론, 작가론에 해당된다. 실제 명품이 욕계에서 자리잡는다면 작품론으로 발전해 가면서 불교의 하늘도 이제 그 원리가 이해된다. 천문 28수의 반영이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하늘의 구조도 라캉의 4가지담론처럼 지수화풍이나 음양오행처럼 겨울-봄-여름-가을의 순으로 전개된다.

결론적으로 동서양이 혼종된 『쿵푸팬더』는 동서양 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미학적 모델은 동서양 혼종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모순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되고 수많은 생산적 모델들이 완성되었다. 특히 미학을 통한 동서양의 혼종적 분석은 그동안 잘 이해되지 못한 『쿵푸팬더』 4편과 기존 1, 2, 3편과의 관계를 잘 해명해준다. 동서양이 혼종된 문화유산은 향후 인류에게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공현희, 「시리즈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역할 및 욕구변화에 대한 연구-『쿵푸팬더』 시리즈애니메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3): 77-102. 2016,
- 김수정, 「12 영웅여정단계 내러티브 분류에 기초한 애니메이션 분석: <인크레더블>, <쿵푸팬더>, <라이온 킹>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1(4): 43-59, 2015.
- 김영건, 『동양철학에 관한 분석적 비판』, 서울: 라디오출판사, 2009
- 박남용, 정영선, 「『쿵푸팬더1,2』에 나타난 문화적 혼종성과 오리엔탈리즘」, 『中國研究』 53(-): 1-18. 2011,
-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학』, 서울: 향연, 2005.
- 안정훈, 「〈물란MULAN〉에서 〈쿵푸팬더〉까지」, 『中國小說論叢』 32(-): 423-445. 2010,
- 양세혁, 「〈쿵푸팬더〉 캐릭터의 욕망과 두려움 분석」, 『예술과 미디어』 10(2): 95-107.
- 양세혁, 「〈쿵푸팬더>, <업>, <겨울왕국> 캐릭터의 정신역동적 성장 구조 - 욕망 왜곡의 변인으로서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4(4): 145-169, 2015,
- 양세혁, 「은유와 모순의 의미작용에 의한 캐릭터 아이러니의 구조 - <쿵푸팬더>, <업>,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5(4): 133-150. 2016,
- 이진훈, 「12운성에 관한 연구」, 공주: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0.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학문적 특성과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 겨레어문학 제39집, 겨레어문학회, 2007,
- 정재은, 「'쿵푸팬더4' 금쪽이 '포'바오의 진실한 성장기」, 『서울경제』 24.03.29, 2024,
- 최광진, 『한국의 미학: 서양, 중국, 일본과의 다름을 논하다』, 고양: 미술문화, 2015.
- 최원혁, 「영화 <토르>와 <쿵푸팬더2>에 나타난 서사발생지점에 대한 연구」, 『문학치료연구』 25(-): 131-154. 2012,